

전석 무료 전석 VIP... 야외공연장에서 만나요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예향** 8월호

광주문화재단
야외공연지원사업
5개단체 하반기 공연
'불효자는 읍니다'
'모노 음악극 춘.수.심'
'오월의 행진 모리바야사'
'운무망망'
'무등산수를 그리다'

광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올 하반기 다채로운 야외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거리예술 창작공연 발굴·야외공연 기반 조성을 위해 기획한 '2019 야외 공연장작지원사업' 하반기 공연이 막을 올린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극단 '타' (대표 임준형),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대표 한석중), 아프리카타악 그룹 '아냐포' (대표 양인선),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 (대표 한승철),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대표 김미숙)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음악극, 무용, 판소리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극단 '타'는 음악극 '불효자는 읍니다'를 공연한다. 시대의 아픔, 당면한 과제, 해학적 문화 등을 전통음악과 연극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다양한 사투리를 활용하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무대가 특징이다. 오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5·18민주광장, 6일 남부대학교, 8일 염주체육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의 '모노음악극 춘.수.심'은 판소리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를 현대음악과 결합된 음악극으로 풀어낸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야기 '춘',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물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수', 심봉사가 눈을 뜨고 다른 봉사들도 모두 눈을 뜬다는 내용의 '심' 3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공연장소·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공연할 예정이다. 3일-9월 7일 5·18민주광장, 8일 남부대학교, 31일-9월28일 대인예술사장.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냐포'는 광주의 애환을 담은 거리 퍼레이드 '오월의 행진 모리바야사 (Moribayasa)'를 펼친다. 80년 당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희망'을 부르는 주술적인 서아프리카 춤 '모리바야사'를 선보이며, 특별 제작한 2.5m 크기의 마스크를 쓰고 시민과 함께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14일 남부대학교, 24일-10월 19일 5·18민주광장. 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의 '운무망망(雲舞望望)'

은 '안개가 짙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춤을 추며 시름을 잊고 영원한다'는 뜻을 담은 창작연희극이다. 힘겨운 경쟁 사회 속에서 온라인 세계의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남부대학교, 광주시 서구 운천호수공원, 북구 문화근린공원 야외무대,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열린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무용 '무등산수를 그리다'를 선보인다. 국창 임방울 선생과 의재 허백련 선생 이야기를 한국무용과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매 회차별로 다른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무등산수'는 허백련 선생의 삶과 그림, 무등산 이야기를 표현하고, '빛고을 소리 앞방울'은 임방울 선생의 사랑과 소릿길을 묘사한다. '한복 춤을 입다'는 한복의 다양한 복식에 대한 설명과 그에 어울리는 춤사위를 펼친다. 16-17일, 9월 29일, 10월 3일-9일 전통문화관 야외무대. 문의 062-670-791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 문화바캉스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8월이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휴가계획을 짜는 가족들의 설렘이 느껴지기도 한다. 올 여름은 미술관·박물관으로 '문화바캉스'를 떠나 보자.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8월호는 특집 '우리동네 미술관·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바캉스'를 준비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우리의 삶과 정신을 운택하게 만드는 '보석 같은' 문화공간이다. 심미안(審美眼)을 기를 수 있는 우리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안내한다.

예향 초대석은 '천(千)의 얼굴'을 가진 배우 김성녀씨를 만나고 왔다. 김성녀는 연극과 마당극, 창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 왔다. 15년째 통연 중인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에서는 32개 역(役)으로 변신한다. 최근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직을 퇴임한 후 배우 김성녀로 돌아온 그를 만나 60여년 예술인생에 대해 들었다.

요즘 TV를 켜면 가장 많이 들리는 음악이 트로트가 아닐까 싶다. TV조선 예능 '내일은 미스트롯'으로 불붙은 트로트 열풍은 TV를 넘어 방송과 행사, CF까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획 '왜 트로트인가'에서는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씨가 분석하는 '이유있는 트로트 열풍'과 핫한 인물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전남 곳곳을 돌며 관광명소와 맛집을 소개해 온 '新安도덕리지'가 마지막 여정으로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로 안내한다. 지난 6월 '국제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목포는 일제 강점기 근대역사문화를 품은 역사의 도시이기도 하다. 유달산 아래 펼쳐진 다양한 모습과 '맛의 도시'를 선포한 도시답게 바다 향 가득한 맛있는 밥상을 소개한다.

광주일보의 기사제휴사인 중앙SUNDAY와 공동으로 현재 여수에서 집필 중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의 '바우하우스' 이야기와 유현준 흥익대 건축학과 교수의 '도시건축'도 새롭게 연재한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영랑 출신 '스타 유튜브' 박막례 할머니가 전하는 유튜브 성장과정과 70대에 뒤바뀐 인생 이야기, 20년 프로야구 생활에 작별을 고하고 또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KIA타이거즈 '캡틴' 이범호 선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외에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 네발 두 번째 이야기인 '비스카 자트라' 축제, 영화·드라마에 늘 활영된 '목포가 핫하다',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 프랑크푸르트 시립중앙도서관 & 뒤셀도르프 공립도서관,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충북 옥천 정지용문학관, DJ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현장 등을 소개한다. /이보람 기자 boram@



'2019 야외공연장작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단체가 오는 10월까지 5·18민주광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 (위)과 극단 '타'.



◀이화영 작 '평생도' 일부

용기와 민화가 한자리에

'숨 쉬는 그릇' 용기와 한국 민화를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학수 용기장과 이화영 민화작가 부부 초대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전남무형문화재 제37호 용기장인 이 작가는 중요 무형문화재 96호 용기장 보유자였던 선친 이육동씨와 작은 아버지 이래원씨의 대를 이어 9대, 300년에 걸쳐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보성군 미력면에서 미력용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작가는 흙덩이를 판자처럼 길게 늘어뜨려 그릇의 틀을 만드는 '햇바퀴 타래 기법'으로 용기를 만들고 있다. 가볍고 단단하며 통기성과 정화력 등이 뛰어나

이학수 용기장·이화영 민화작가 부부초대전
1~7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는 평가를 받는 미력 용기는 천연 잣물을 사용해 용기마다 독특한 모양과 색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력 용기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찻잔부터 주전자, 항아리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다채로운 작품이 전시된다. 이 작가는 단국대 도예과를 졸업했으며 제18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96호 용기장 이수자였던 아내 이화영 작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용기 작업 대신, 한국적 정서가 담긴 민화 작업에 빠져들었다.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채색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사람들의 일생과 희로애락을 담은 병풍 형태의 '평생도'를 비롯해 '금강산



이학수 작 용기

도, '연화도', '송학도'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9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지난해 미국 워싱턴 M.K.갤러리 초대전에 이어 겨울에도 같은 곳에서 민화 초대전을 열 계획이다. 광주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대한민국전통채색화협회를 맡고 있으며 이화영전통채색화 연구소를 운영중이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www.shinyangparkhotel.com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